



김용석씨

푸른숲/A5신/432면/15,000원

인문적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분석한 철학에세이

《미녀와 야수, 그리고 인간》 펴낸 김용석씨

이 책은 여러모로 이채롭다. 어린이들의 전용물로 평가절하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인문학의 화두를 독해해내기 때문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는 인간성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다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혼화’ ‘복합주연성’ 등의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거나 주석과 하이퍼텍스트의 연계성에 주목한 것도 독창적이다.

지난해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펴내 국내 문화담론의 지평선을 넓혔던 문화칼럼니스트 김용석씨(49)가 《미녀와 야수, 그리고 인간》(이상 푸른숲)을 출간했다. 첫 책이 현대의 문화담론과 인간학을 넘나들며 문화와 인간, 그리고 문화의 미래를 성찰한 ‘총론’ 격의 작업이었다면, 이 책은 인문학의 관점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분석한 ‘각론’ 격의 철학에세이다.

애니메이션과 인문학 콘텐츠의 관계 모색

질 들뢰즈의 《영화》, 마르크 페로의 《역사와 영화》 등 영화와 인문학의 경계선을 가로지른 성과물이 국내에 적지 않게 소개됐지만, 애니메이션을 철학적 텍스트로 삼아 독해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책의 분석대상은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언 킹> 등 네편의 작품이다. 김씨는 이들이 ‘디즈니 르네상스’를 이끈 작품이라고 규정한다.

“이들 작품은 월트 디즈니 사후 그가 추구했던 예술성과 상업성, 감동과 재미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아가 각 작품마다 근대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이 충실하게 반영돼 있죠. 따라서 인문학 콘텐츠와 애니메이션의 관계성을 밝히는 데 적합한 텍스트입니다.”

김씨는 네편의 애니메이션에서 개인성의 부상, 여성상의 변화, 사회정의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등을 중흥으로 읽어나간다. <미녀와 야수>에서 자아의식과 주체의식이 드러나고, <알라딘>에서는 자아로부터의 해방, 허위로부터의 해방, 약속으로부터의 해방 구조를 읽어낸다. <라이언 킹>이 의미추구의 절정에 선 작품이라면, <인어공주>는 비(非)의미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각 작품마다 짜임새, 캐릭터의 상징성 등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나 구조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책에는 지은이만의 번득이는 분석력이 돋보이는 대목이 산재해 있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마법에 걸리고 여기서 해방되는 계기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간파해내는 것이 한 예다. 마법의 계기가 타인에게 있는 중세식 이야기 설정이 이 작품에서 역전된 것이다. 이런 독해의 바탕에는 그의 체험이 자리잡고 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작품을 봐야 그 구조, 상징성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보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서구에 머물며 연구해 그들의 의식구조를 자연스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작품을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김씨는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창안하는 점에서 독특하다. 첫 책에서 선보인 ‘유크로니아’(uchronia, 理想時)나 이 책에서 제안한 ‘혼화’

(魂畵, 혼이 들어간 만화), ‘복합주연성’ ‘견인적 상징구조’ 등이 그 예다. 김씨는 이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우리는 혼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관습화된 개념으로는 새로운 현상을 담아낼 수 없게 된 거죠. 동일한 현상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주석에 방점을 찍는 것도 김씨의 개성적인 면모 가운데 하나다. 첫 책에서 방대한 주석을 미주로 ‘귀양’ 보냈지만, 이번 책에서는 과감하게 방주로 처리했다. 김씨는 이 책의 <글 뒤에>에서 지면을 할애해 방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보 공유나 지식 확충적 기능을 위해서도 주석은 필요합니다. 나아가 각주나 방주 등이 일화된 것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의 글쓰기 전통에서 하이퍼텍스트가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데도 김씨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혼합의 시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자문화와 구두문화 등이 공존하면서 문화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1세대 이상 지속될 이런 혼합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 문명의 밑그림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천홍 기자